

# 낙인의 역사 딛고 문화·생태 '희망의 섬'으로

“그런 게 어쨌든 죽을라면 주일날 죽이라는 거여.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날 저녁에 죽던지, 주일날은 해부를 안 하잖아요.  
 바로 오래 놔둘 수가 없으니까 바로 화장장으로 가니까.  
 그래서 말이 죽을라면 주일날 죽던지 토요일날 저녁에 죽던지,  
 그건 화장터로 바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게 해부 안 하고 죽을라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센인 환자의 체험담)



◀소록도병원  
▶감시실

## 개원 100주년 맞는 소록도병원 변화 모색

역사관 곧 완공...원생 생활상 등 공개

100년사 편찬·국제심포지엄 개최

전국 생존자 초청 5월 홈 커밍데이

지난 2011년 소록도병원이 95주년을 맞아 펴낸 구술사료집 '또 하나의 고향 우리들의 풍경'에 수록된 어느 환자의 체험담이다. 그는 고백한다. 죽을 자체보다도 죽을 이후에 벌어질 '해부'라는 절차가 더 두려웠다고. 그것은 죽어서까지 존엄이 훼손당하는 '참혹함'은 당할 수 없다는 간절한 바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록도의 역사를 한센인으로 제한한다면 굴절의 역사를 온전히 조명할 수 없다. 그 같은 시각은 소록도를 육지와 격리된 섬이라는 공간적 개념에 전적으로 측면만을 부가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100주년(5월 17일)은 소록도를 시간적인 면과 다층적인 면에서 소록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섬 지형이 작은 사슴을 닮아 붙여진 소록도는 고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다. 일제는 1916년 자혜의원을 설립해 한센인들을 이곳에 격리했다. 이후 소록도병원은 모두 일곱 차례나 명칭의 변경을 거치게 된다. 자혜의원으로 출발해 소록도 경쟁원(1934), 중앙 나요양소(1949), 경쟁원(1951), 소록도 경쟁원(1957), 국립 소록도병원(1960), 국립나병원(1968), 국립소록도병원(1982)으로 바뀌며 100년의 시간을 흘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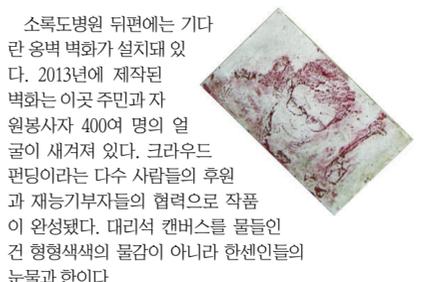
명칭의 잦은 변경은 그만큼 부침과 곡절이 심상치 않았음을 전제한다. 일제 침략기에 단행된 한센인 격리 조치는 학대와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다. '수탄장'(瘡瘻場) 말 그대로 근심과 탄식의 공간이다. 병상의 부모와 보육소에서 생활하던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남이 가능했다. 당국은 철조망을 둘러쳐 전문을 인위적으로 막았다.

가장 극명하게 소록도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감시실, 감금실이다. 감시실에서는 단종(斷種)수술이 이루어졌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후대를 잇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감압에 의해 '거세'를 당한다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 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 있노라" 정관수술을 받았던 누군가의 절규가 벽면에 걸려 있다. 그의 영혼은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참혹함을 죽어서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이다.

감금실은 흔히 말하는 징벌의 공간이다. 낡고 추레한 붉은 벽돌은 이곳에 감금당했던 이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송두리째 지배했다. 어둡고 눅눅한 이 공간에는 냉대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이의 응어리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죽으면 해부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유족의 의사와는 하등 무관하게 이루어진 해부는 인간이 얼마나 극악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차갑고 녹슨 기구들에는 그 위에 올라야 했던 이들의 뜨거운 눈물과 질은 회한이 깃들어 있을 뿐이다.



소록도병원 뒤편에는 기다란 울벽 벽화가 설치돼 있다. 2013년에 제작된 벽화는 이곳 주민과 자원봉사자 400여 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다수 사람들의 후원과 재능기부자들의 협력으로 작품이 완성됐다. 대리석 캔버스를 물들인 건 형형색색의 물감이 아니라 한센인들의 눈물과 한이다.

감시실과 감금실을 나와 언덕 저편으로 걸음을 옮기면 중앙공원이 나온다. 정밀하면서도 아름다운 공원이자, 물에서 들어온 기암괴석과 관상수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이 정밀한 공원이 자아내는 질서의 행렬은 지극히 폭력적이다. 1940년에 완공된 이곳은 연인원 6만여 명이 강제 동원됐다.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중앙공원 조성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 당시 병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며 '천국 건설'에 동원됐다. 1970~80년대 개발독재 시대의 단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작품은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보여준다.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권력은 필경 중으로 귀결될 뿐이며, 그것은 '우리들의 천국'이 아닌 '당신들의 천국'에 지나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연륙교가 놓여 손쉽게 소록도를 찾을 수 있다. 들고 나는 차들의 행렬 속에서 지난 시대의 '역사'가 수시로 출몰한다. 소록도병원은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0주년 역사관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이 역사관에는 원생들의 생활상, 비품, 의료 관련 기구 등 다양한 자료가 비치된다. 병원은 워크숍 등을 통해 무엇을 채울 것인지 콘텐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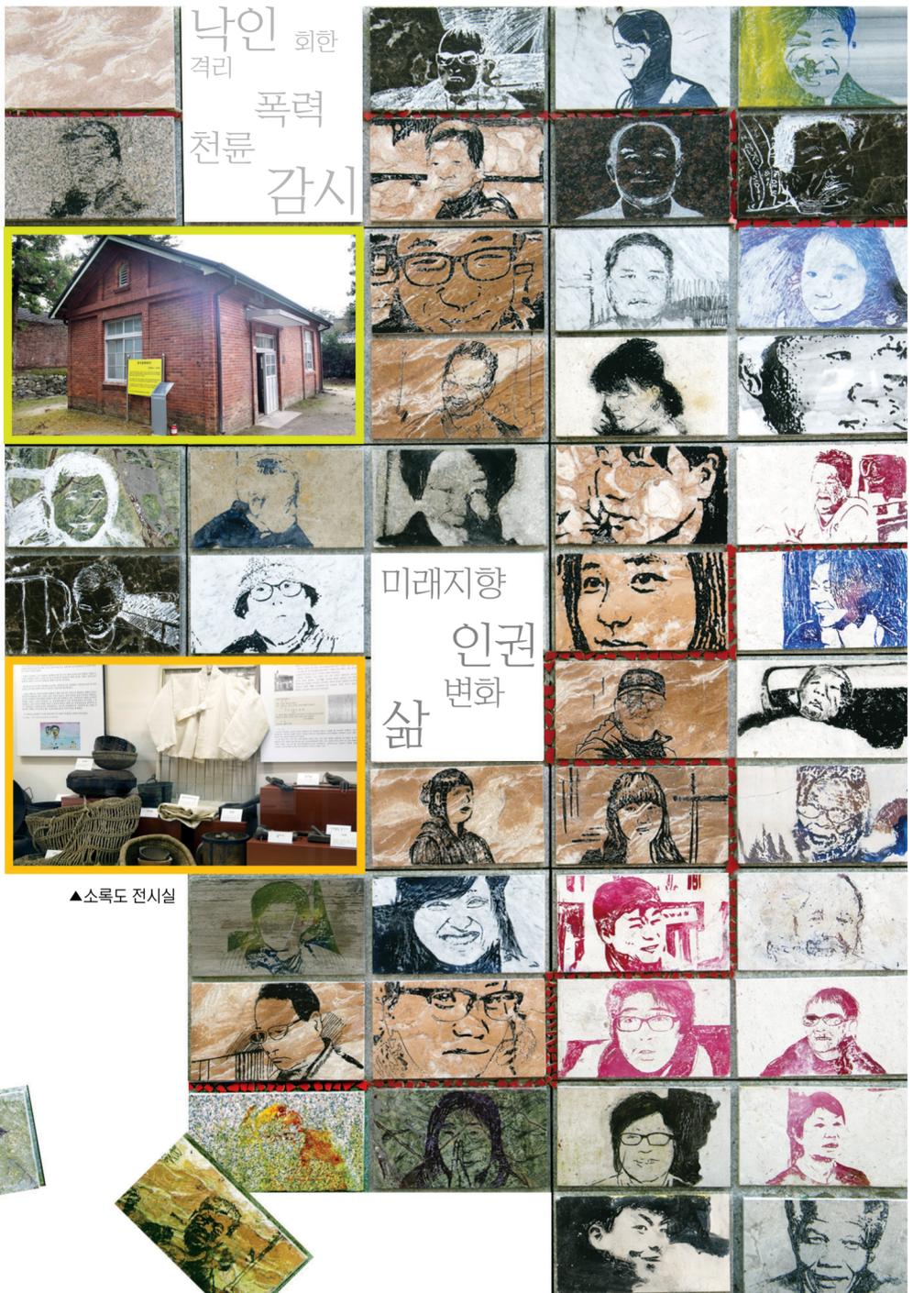
이밖에 100년사 편찬과 국제심포지엄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적 측면에서 기록을 남기고 집적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1차로 오는 3월에 역사관 시운전을 한 뒤 5월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 생존해 있는 분들을 초청해 홈 커밍데이를 개최한다.

"역사 자료관은 건립위원들뿐 아니라 한센인들의 의견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전시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중점을 둘 예정이죠."

박형철 소록도 병원장은 100주년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비해 편견은 많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한층의 낙인은 남아 있다"며 "조금의 불편한 시각도 말끔히 사라지는 세상이 하루 속히 다가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록도병원에는 환자 560명이 입도해 있고, 직원 200여명이 아들을 돌본다. 사명감이 없으면 환우들을 보살필 수 없다. 소록도병원은 이제 역사와 인권, 생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나온 세기가 불온과 아픔의 역사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100년은 건강과 복지, 문화와 생태가 넓은 바다처럼 펼쳐지는 희망의 섬이 될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3년에 제작된 소록도병원 벽화. 여기에는 환자와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소록도 구라탑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패턴, 대리석스톤질, 풍나무벽, 스타일리쉬 직방벽, 혁신패턴(에어월드)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